

프랑스 관광시장 동향 (6월)

'26. 6. 30 (화) / 파리지사

□ 프랑스 관광 및 교통 주요 동향

○ (관광) 국제 관광 회복세 지속 및 프랑스 비즈니스 관광 성장

- UN Tourism 자료에 따르면 '26. 1분기 국제 관광객 수는 3억 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유럽은 1억 3천만 명 이상을 유치해 4% 성장함. 동북아도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프랑스는 '25년 인바운드 비즈니스 출장객 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해 주요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약 1,160만 명의 비즈니스 출장객을 유치함. 이는 파리올림픽 이후 개선된 교통·MICE 인프라, 프랑스 테크 산업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정책) 프랑스 관광혁신 육성 및 관광테크 공모사업 추진

- 프랑스 경제기업총국 산하 관광부 및 프랑스 관광공사는 제4회 France Tourisme Tech 공모 사업(6. 19.~9. 20.)을 추진하여 관광객 이동 동선 관리, 여행객 경험 개선, 환경 영향 감소, AI 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등 관광산업 혁신 솔루션 발굴을 추진 중임.
- '23년 이후 총 35개 사업이 80개 공공·민간 파트너의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모는 관광테크 허브 육성과 스타트업·딥테크 분야 확대를 목표로 함.

○ (항공) 성수기 수요 확보 위한 항공사 프로모션 및 노선 확대

- Air France-KLM은 6.3~17일 프랑스 출발 장거리 노선 항공권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일정 변경 프로모션을 실시했으며, Transavia도 프랑스 본토 출발 항공편 대상 일정 변경 등이 가능한 Flex 서비스를 무료 제공함.
- 프리미엄 항공사 La Compagnie는 프랑스 니스-미국 뉴욕 직항편을 동계까지 연장 운항할 예정임. 해당 노선은 당초 여름철 계절 노선으로 운영됐으나 높은 탑승률과 프리미엄 레저·비즈니스 수요 증가에 따라 겨울 시즌까지 주 2회 운항을 지속함.

○ (교통)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지하철 18호선, 연말 개통 예정

- 파리광역교통공사(Île-de-France Mobilités), 파리 외곽 연결하는 새로운 자동 운전 광역 지하철망인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Grand Paris Express)' 프로젝트의 첫 번째 개통노선이자 일드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처음 개통되는 지하철 18호선이 26.12월 초에 운행 예정이라고 발표함. 18호선은 에손(Essone) 사클레 고원*에 위치한 대학과 연구단지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노선임. 따라서 18호선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연구·교육 허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오를리공항까지 연장될 예정이라 공항과 연구단지, 전사·비즈니스 시설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사클레 고원(Plateau de Saclay): 프랑스 정부가 조성한 첨단 연구·교육 중심지로, 사클레 고원에는 파리-사클레 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밀집

□ 프랑스, 폭염에 따른 관광 수요 및 업계 대응 변화

○ (관광수요) 폭염에 따른 실질 여행업계 영향은 제한적

- 지난 6.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나, 관광업계는 여름 휴가 예약 취소나 관광수요 감소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프랑스 여행사 셀렉투어(Selectour)는 이미 확정된 여름 휴가 예약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장거리 여행객의 여행 계획에도 큰 변화는 없다고 분석함. 다만 인바운드 기업출장은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숙박·호텔) 냉방시설 갖춘 숙박시설 선호 확대

- 폭염 장기화로 여행객들은 숙소 선택시 냉방시설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Hotels.com 플랫폼에서는 6. 14.~23. 기간 동안 에어컨 필터 검색량이 폭염 이전 대비 424% 증가했으며, 냉방시설 유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프랑스 농촌 숙박(Gites de France) 플랫폼에도 예약 자체는 안정적이거나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시설 보유 여부 확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관광목적지) 북부·해안지역 중심 쿨케이션(Coolcation) 수요 확대

- 프랑스 여행객들은 내륙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북부 및 해안지

역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추세임. 6월말 기준 노르망디 도시 트루빌(Trouville) 검색량은 170%, 디에프(Dieppe) 150%, 덩케르크(Dunkerque)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을 피해 시원한 지역을 찾는 쿨케이션(Coolcation) 여행 트렌드 확산.

○ **(관광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관광객 안전관리 강화**

- 프랑스 내 주요 관광시설은 폭염에 대응해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있음. 루브르 박물관은 6.24.~27. 기간 동안 폐장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앞당겼으며,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궁전, 팔레 드 도쿄,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부 시설도 운영시간 단축 또는 임시 폐쇄 조치를 시행함. 디즈니랜드 파리 역시 일부 야외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실내 냉방시설 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관광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지자체) 냉방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서비스 확대**

-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과 시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중부 도시 리옹, 낭트, 오를레앙, 낭시, 라로셀, 투르 등은 박물관과 공공시설을 냉방쉼터로 개방했고, 남부 도시 마르세유와 세트는 시립 수용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폭염 대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파리지, 폭염 대응 공공안전 조치 중 하나로, 폭염 기간동안 일부 공원 24시간 개방. 도심의 녹지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 위한 '쿨링쉼터'로 활용하는 기후 적응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출처: UN Tourisme, 프랑스 경제기업총국(DGE) 및 주요 관광정보지(L'Echotouristique, Business Traveller, Sortiraparis)등 참조